

광양제철소, 모바일 도면정보 앱으로 현장작업 효율성 높인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동렬)가 최근 새롭게 개선된 '글로벌 도면정보 시스템' 모바일 앱을 공개했다.

2013년 12월부터 가동된 '글로벌 도면정보 시스템'은 도면의 생성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新 글로벌 도면정보 시스템' 출시...도면 활용 편의성 증대 작업자 신속 대응위해 시스템 개선·3D 도면 관리 체계 구축

이번 출시된 모바일 앱은 작업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도면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어, 작업의 정확성과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모바일 앱은 GPS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제철소 내에서만 도면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설계하여 정보누출 위험을 사전 차단했다.

포스코는 물론 공급사, 해외법인 등 다양한 PC 환경을 고려하여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표준인 HTML5를 기반으로 한 도면 뷰어 프로그램을(도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

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기존 글로벌 도면정보 시스템은 대용량의 3D 도면 활용 시 시스템 부하, 속도저하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3D 도면 파일의 용량을 줄여 업로드·다운로드 시간을 대폭 감소시키고, 서버 이중화를 통해 단일 서버 환경 대비 안정성도 높였다.(서버 이중화 : 서버 하나를 추가로 구성해 한 서버에서 장애 발생 시 다른 서버로 계속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조치/작업)
포스코 담당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은 현장 직원들의 모바일 기기와 3D 도면 사용의 증가에 따른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모바일 앱 출시를 통해 정비, 투자분야 등 제철소 현장 업무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구현을 위해 AI·Big Data 등 기술 지원을 전담하는 '스마트 헬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DX 및 전문 컨설팅 업체와 협업하여 각 부서 환경에 맞는 AI, 빅데이터 모델 알고리즘 제작을 지원하는 등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조력자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보성군, 대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성녹차 안전관리' 업무 협약 체결

보성군·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농업기술원·보성녹차연합회 맞손



김철우 보성군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방도혁 지원장,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박홍재 원장, 보성녹차연합회 박동호 회장이 보성녹차 안전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환경 인증 농가 교육 및 잔류농약 검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유기 재배관리 지도, 보성 차 제품개발 기술 지원을 하고, 보성녹차연합회는 인증 기준 품질관리 준수(유기 인증&

보성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방도혁,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26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 보성녹차연합회(회장 박동호)와 함께 보성군청 소회의실에서 대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성녹차 안전관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된 '보성녹차'의 친환경 인증(유기)을 통한 엄격한 품질 관리와 안전한 차 생산을 목표로 4개 기관·단체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 협력 내용은 보성군은 친환경 감시원 운영, 유기 재배 및 유기 가공 농가를 지원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리적표시제·친

유기 가공 100% 유지)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약기관 업무 협조를 약속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보성녹차 안전관리' 업무 협약(MOU)이 대한민국의 차 산업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보성 차를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외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녹차'는 대한민국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은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되어 역사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보성=김택순기자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자발적 공익활동 보장...“실천하는 공익활동, 하나되는 일류순천”



순천시는 최근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정병희 순천시의회장을 비롯해 순천시의원, 경기도공익센터 및 광주NGO센터 등 다양한 시민단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하여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첫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개소식은 커팅식과 현판 제막식으로 시작되었고,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는 뜻에서 이화선 작가의 캘리그래피 드로잉쇼가 진행됐다.

이어서 42명의 제1기 순천시 공익활동가를 위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른 지역의 공익활동센터 및 시민단체 등과의 교류 시간도 가졌다.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가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 센터는 공익활동 주제들 간의 연계를 지원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시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김승호기자

여수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5월 11일 본격 운영

여수시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오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 체험 기간을 갖고, 5월 11일 본격 운영된다.

'여수시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화양면 구 나진초등학교 용장분교 폐교를 활용해 롯데지주(주)의 5억 원의 후원과 조록우산 어린이재단

의 추진으로 조성된 전남권 최초의 실내형 놀이터다.

놀이공간은 기존 교실을 활용해 센서놀이터인 인터랙티브존, 교구나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조물조물놀이존, 볼풀, 로프오르기, 정글집 등이 있는 우당탕탕놀이존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소재의 놀이기구를 설치했으며, 쾌적한 놀이 환경을 위해 공기정정기·제습기 등도 갖췄다.

이용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12개월 유아부터 미취학 아동이다.

여수시는 이번 사전 체험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11일 본격 개관하며, 5월 1일 여수시 OK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여수=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